

기획연재 | 가짜뉴스와 사회통합 “脫진실의 동원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 가짜뉴스 유통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 있어

◇ 연재 순서 ◇

- ① 가짜뉴스란?
- ② 가짜뉴스 목적과 유포
- ③ 가짜뉴스 규제 해외 입법사례
- ④ 가짜뉴스, 우리의 대응

뉴스가 가짜일 수 있는가? 적어도 십 년 전만 해도 ‘가짜뉴스’는 ‘뜨거운 얼음’처럼 어색한 말이었다. 친구들과 식당에서 뭘 두고 말싸움을 벌이다가도 “신문에 났다”는 말 한마디면 정리가 되곤 했다.

이렇듯 적어도 뉴스는 진짜라고 믿었다. 가끔 가짜뉴스가 나오긴 했다. 이는 너무 진지한 세상에 ‘쉽표’ 삼아 던진 농담이었다. 만우절에 유포 있는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것은 유럽 언론의 전통이었다.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영국 공영방송인 BBC가 1957년에 내 보낸 ‘국수가 열리는 나무’ 뉴스다.

BBC는 한 프로그램에서 “이상 고온으로 스위스에서 스파게티 국수가 나무에서 열리는 일이 일어났다”며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나무에서 국수를 따내는 화면을 내보냈다. 이는 미리 국수를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찍은 가짜 영상이었다.

뉴스가 나가자 여러 사람이 BBC에 전화해 “스파게티 나무”를 심고 싶는데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 2016 미 대선 기점으로 가짜뉴스 현상 부각돼

이렇게 일 년에 한 차례 만우절 농담을 하던 낭만도 옛일이 됐다. 유럽의 언론사들은 더 이상 만우절용 가짜뉴스를 만들지 않는다.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져 골칫거리이기 때문이다.

구글 검색어 추이를 보여주는 창에 ‘가짜뉴스’란 단

어를 넣으면 그래프가 뜨는데, 거의 바닥을 기다가 2016년 중반부터 갑자기 검색 빈도가 치솟는 걸 볼 수 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였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본선은 물론이고, 그 전의 경선국면에서부터 가짜뉴스가 관심을 끌더니 대선 종반으로 갈수록 이를 둘러싼 혼란과 논란이 가열됐다.

이 대선 국면에서 문제가 된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프란치스코 교황, 트럼프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와 세계에 충격을 준다”, “트럼프가 미국을 떠나고자 하는 아프리카와 멕시코 사람들에게 무료 편도 항공권을 제공키로 했다” 등이었다.

이 대선 국면에서 흘러나온 이런 가짜뉴스는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여론의 추이를 좌우하는 위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사실이 아니란 걸 알면서 독자를 오도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언론보도의 외양을 취해서 유포한 허위사실”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다.

여기서 ‘가짜뉴스’의 뜻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의 폐해가 더 심해지면 이런저런 규제를 해야 할 텐데, 대상이 무엇 인지도 모르고 법을 만들고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짜뉴스가 남용되다 보니 학

계나 당국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말을 쓰지 말고 ‘허위·조작정보’이란 말을 쓰려는 움직임도 있다.

## 규제 위해선 가짜뉴스 정의 명확히 세워야

가짜뉴스는 어느 날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에서 의도된 허위정보는 항상 있었다. 백제 무왕의 ‘서동요’는 선화공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한 허위정보였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악의적인 허위정보를 퍼뜨렸고, 이는 끔찍한 조선인 학살로 이어졌다. 가짜뉴스란 말이 없던 시절에는 이런 날조된 정보를 유언비어나 흑색선전 따위로 불렀다.

오늘날 가짜뉴스는 민감한 사안, 또는 유명인에 대해 “눈을 확 끌어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유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런 만큼 영향력도 강해지는 것이다.

가짜뉴스가 현실의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미 대선 때 힐러리 캠프 쪽이 아동 성매매와 연관돼 있다는 가짜뉴스를 읽고 피자 가게에 들어가 총을 난사한 사건도 빚어졌다. 한국에서도 2016년 말부터 2017년으로 넘어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기간에 가짜뉴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됐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누가 여성 대통령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돌려 한국을 보라고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말했다” 등이다.

이 뉴스가 얼마나 진짜 같았는지 많은 이들이 뉴스를 공유하고 퍼 날랐다. 가짜뉴스는 일거에 주요한 정치-미디어 현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봉현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www.koreaff.or.kr

국민을 행복하게, 국가에 도움되는

대통령배 제56회

# 전국나라사랑 스피치대회

일시 2019년 9월 27일(금) 13:00

장소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대강당



### 시상내역

구분	상 격	인원	상 금
대통령상	대통령	1인	100만원
국무총리상	국무총리	1인	60만원
장관상	통일부장관	1인	40만원
	국방부장관	1인	40만원
	행정안전부장관	1인	40만원
	국가보훈처장	1인	40만원
대회장상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1인	40만원
장려상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14인	각 20만원